

03

March 2025
vol. 283

Style 1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ring has come!



TOD'S



D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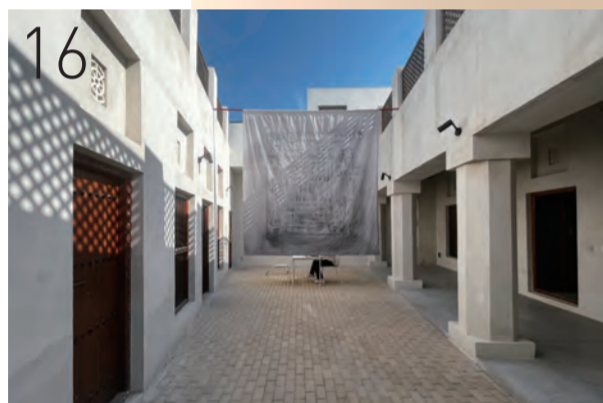
MY DIOR COLLECTION

온라인 부띠끄, Dior.com



Contents

- 08_SELECTION 1 핑크를 더해 더욱 우아하게, 그녀의 모카 무스 아이템 활용법.
- 10_SELECTION 2 모카 무스를 베이스로 한 스프링 컬러 매치 제안.
- 11_TIME TO START 첫출발의 설렘과 꿈을 안은 젊은 그대에게.
- 12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4_30년 넘는 여정 속 공고히 자리 잡은 예술의 메카 UAE의 '문화 수도'로 여겨지며 3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거듭하고 있는 샤르자 비엔날레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해 4개월 넘는 여정을 펼친다(2. 6-6. 15).
- 16_‘샤르자’ 브랜드를 세상에 각인시킨 변화의 리더십 20대 초반에 미술계에 등장한, 샤르자 비엔날레를 이끌어가는 후르 알 카시미는 샤르자 비엔날레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 17_ARTIST IN FOCUS 샤르자 비엔날레는 자신만의 작업을 해나가는 작가들과 손잡고 2백 점 넘는 신작 커미션올해 기준을 내놓는 것은 물론 협업 과정에서 병렬적인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을 받는다. SB16에 신작 커미션 작품을 선보인 한국계 작가 2인을 만나봤다.



- 18_메아리로 가득 찬 세상의 울림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은 소리를 비정각적·정칙적 차원에서 조형하는 작업을 해왔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개인전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2. 8-7. 6)에서는 드로잉, 벽화, 영상, 설치 등 작업 90여 점을 선보인다.
- 19_CHECK WRIST 남녀 모두 착용하기 좋은 브레이슬릿 셀렉션.
- 20_GET THE LIST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제안.
- 22_ESSENTIALS FOR HIM 이번 시즌 내내 함께하고 싶은 메인 패션 하우스의 감각적인 남성 백과 슈츠.
- 23_INTENSE ELEGANCE 메종이 재해석한 팬더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팬더 드 까르띠에.
- 24_2025 S/S TREND REPORT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복잡했던 2025 S/S 컬렉션. 여러 트렌드가 혼재한 이번 시즌은 마치 지금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듯하다.
- 26_THE SPOTLIGHT 이탈리아 비치(beach) 파티에서 영감받았다. 나른한 듯 분방한, 쉬이 시선을 땔 수 없는 호간 2025 S/S 컬렉션.
- 27_TIME OF VICTORY 올림픽 타임킵 오메가는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을 선보이며 또 한번 이 순간을 기념한다.
- 28_OH, MEN! 스타일리시한 그 남자의 봄, 실루엣과 프린트에 주목할 것.
- 36_SCENTS OF SPRING 매서운 바람 뒤에 한층 극적이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봄 향수.
- 37_LUX FOR SKIN 궁극의 스킨케어 리추얼을 선사하는 샤넬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수블리마지 라인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
- 38_EDITOR'S PICK 출시되자마자 위시 리스트 0순위를 차지하는 뷰티 아이템 10.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캘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가 2025 S/S 시즌, 정제된 럭셔리와 타임리스한 우아함을 담은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가벼운 카프스킨과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을 강조한 디아이 폴리오 백(Di Bag Folio)과 장인 정신을 결합한 최상급 소재의 파슈미(Pashmy) 보머 재킷을 제안한다. 문의 02-3448-8233



PANTHÈRE
DE
Cartier



옐로 골드 소재에 총 0.12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와일드 플라워 미니 이어링 6백68만원 **그라프**.



장인의 손으로 완성한 머더오브펠 다이얼과 옐로 골드 케이스가 조화를 이루는 지름 30mm의 여성용 워치 8067 2천6백만원대 **브레게**.



총 1.54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포제션 펜던트 2천4백30만원 **피아제**.

플로럴 그린 향의 알티문 파워 인퓨징 핸드크림 75ml 3만원대 **시세이도**.



봄에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의 울라셀 트윈드 미니스커트 1백20만원 **둘체앤가바나**.



아세테이트 소재 컷 아이 선글라스 가격 미정 **맥퀸**.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작인 페가수스 헤어 클립 25만원 **에트로**.



18K 핑크 골드 소재에 총 2.9캐럿 핑크 퀴츠 1개와 총 0.49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 16개로 완성한 세련 보렘 핑크 퀴츠 트리플 모티브 링 1천만원대 **부쉐론**.

for her Selection

핑크를 더해 더욱 우아하게! 그녀의 모카무스 아이템 활용법.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기모노가 떠오르는 유니크한 디노-그램 프린트 재킷 2백45만원 **페라가모**.



부드러운 킷프 스킨 소재에 월드 토탈 스트랩이 포인트인 스몰 사이즈 사벨 25 호보백 가격 미정 **사벨**.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베를 스트랩을 장식한 발레 뒤 룩아 발레티나 1백40만원대 **발렌티노 가라바니**.

플로럴과 우디 노트가 조화를 이루는 크러쉬 오드 퍼퓸. 50ml, 11만8천원 **MCM**.

그라프 02-2256-6810 피아제 1668-1874 둘체앤가바나 02-3442-6888 맥퀸 02-6105-2226 시세이도 080-564-7700 에트로 02-3446-1321 부쉐론 02-3479-6028 브레게 02-6905-3571 셀린느 by 에디 슬리먼 1577-8841 페라가모 02-3430-7854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투미 02-539-8160 MCM 1600-1976 사벨 080-805-9628

에디터: 최정민 스타일리스트: 임희영

© GRAFF.COM



GRAFF



베이비 캐시미어 소재의 포벨로 카디건 6백만원대 **로로피아나**.

카프 스카트로 제작한 그린 컬러 에트르메르 반다이슬릿 1백50만원대 **에르메스**.

엘로 골드에 말라카이트를 가미해 자연의 생동감을 담은 뉴크로스펜던트 가격 미정 **스티븐 웹스터**.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07캐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그라프 이터너티 링 4백30만원대 **그라프**.

토프 브라운 컬러의 독특한 패턴을 입은 선글라스 57만2천원 **올리버피플스 by 에실로룩스티카**.

풀 그레인 카프 스킨 레더 소재로 제작한 오가미노 1백10만원대 **토즈**.

for him Selection

모카무스름 베이스로 한스프링 컬러 매치 제안.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브랜딩 고유의 로고자수 디테일을 새긴 브라운 카프 스카티 랑가리 미ջ 미ջ **마르니**.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약 0.0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와 약 2.6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포제션 브레이슬릿 5천1백50만원 **피아제**.

실버 미니 로고 참을 더한 레더 벨트 가격 미ջ **메종 마르지엘라**.



양면 스냅형 미니 이렌 맥시 모노그렘 레더 스냅 지갑, 9×12×2cm, 43만원 **MCM**.



포근한 크림 컬러의 그레인드 레더에 스티치 디테일을 새긴 **라벨**.

다이얼과 스트랩을 톤온 톤 컬러로 매치했다.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에벤저 B01 크로노그래프 44브레이들링 1천2백12만원 **브라이들링**.



페이슬리 자카드 패브릭으로 완성한 트래블 백. 45×31×24cm, 2백95만원 **에트로**.

- 로로피아나 02-6200-7799
- 에르메스 02-542-6622
- 스티븐 웹스터 02-2231-1592
- 그라프 02-2256-6810
- 에실로룩스티카 02-501-4436
- 토즈 02-3438-6008
- 브라이들링 02-792-4371
- 피아제 1668-1874
- MCM 1600-1976
- 마르니 02-772-3233
- 메종 마르지엘라 02-772-3234
- 랄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 에트로 02-3446-1321
- 투미 02-539-8160



통합 TSA 잠금 장치와 3단으로 길이 조절 가능한 핸들을 장착한 단거리 확장형 4휠 패킹 케이스 캐리어, 44.5×66×25.5cm, 1백30만원대 **투미**.

에디터 신영희/스타일리스트 임태영

Time to Start

첫출발의 설렘과 꿈을 안은 젊은 그대에게.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IWC 포르투기저 오토매틱 42 지름 42.4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실버 도금 다이얼로 우아하고 클래식한 감성을 전하는 워치. 2개의 배럴을 통해 무려 7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IWC 자체 제작 52011 칼리버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1천8백50만원. 문의 1877-4315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퍼스트 오메가 인 스페이스 우주 비행사 월터 시라가 미션 수행 시 착용한 위치를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39.7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그레이 블루 다이얼, 빈티지 슈퍼루미노바® 인덱스가 세련된 감성을 전한다. 1천1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태그호이어 까레라 크로노그래프 아이코닉한 까레라 디자인에 산레이 브러싱 처리한 스모키 파플 다이얼이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브러싱 및 폴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39mm 케이스에 매뉴팩처 칼리버 TH20-00 오토매틱을 장착해 특별함을 더했다. 9백75만원. 문의 02-548-6021
피아제 홀로 필드 그린 에메랄드 컬러 다이얼이 매력적인 42mm 사이즈 스틸 케이스 모델. 슈퍼루미노바® 인덱스와 핸즈로 남성들이 사랑하는 디테일을 모두 갖췄다. 피아제 자체 제작 1110P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천1백만원. 문의 1668-1874
블가리 옥토 로마 둥근 곡선이 돋보이면서도 완전한 라운드 디자인으로 규정되지 않는 독특한 팔각형 케이스가 개성을 부여한다.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클루드 파리 마감 기법이 돋보이는 엔트러사이트 다이얼이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며, 최대 10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1천30만원. 문의 02-6105-2120
브라이들링 내비타이어 오토매틱 GMT 41 파일럿 워치의 감성을 가득 담은 다이얼의 아이코닉한 슬라이드 롤이 특징이다. 이 모델은 크로노그래프를 과감히 생략해 한층 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스카이 블루 다이얼과 메탈 브레이슬릿의 조화가 매력적. 9백49만원. 문의 02-792-4371
파넬라이 루미노르 퀴런타 비렘포 메탈 브레이슬릿 세컨드 타임존을 표시하는 GMT 기능을 갖춘 워치로 홀타임과 현지 시간대를 추적하는 데 용이하며 블루 슈퍼루미노바®를 적용한 핸드는 어둠 속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발휘한다. 1천3백만원대. 문의 02-1670-1936
 에디터 **성정민**





DEEP BLUE SEA

Step On

남자의 고상한 기품이 느껴진다. 토즈 바포(Baffo) 로퍼는 1970년대 아이비 리그에서 유행한 로퍼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한 디자인, 개더링 디테일과 손으로 촘촘히 꿰맨 스티치가 특징이다. 페니 로퍼 스타일로 실제 동전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스포츠 메탈 플레이트로 대신해 트렌디한 면모도 놓치지 않았다. 이 디자인은 콧수염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바포'는 이탈리아어로 콧수염을 뜻한다. 신발 바닥부터 약 1인치까지 모두 1장의 레더로 제작하는 까다로운 튜블러 공법을 적용해 견고하지만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1백39만원. 문의 02-3438-6008

신비한 푸른빛 다이얼을 매치한 워치 3. (위부터 차례대로) 예거 르쿨트르 듀오미터 쿼텝 루니 42.5mm 블루 그레데이션 섹터형 다이얼에 고급스러운 옐리게이트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멋까지 느낄 수 있을 것.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6천4백50만원. 문의 1877-4201 론진 콘퀘스트 38mm 콘퀘스트 컬렉션 탄생 70주년을 맞아 탄생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과 블루 다이얼이 만나 청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3백10만원. 문의 02-3479-1940 불랑팡 피프티 패덤스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칼린더 문페이즈 43.6mm 블랙 컬러의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그리고 신바스트 블루 다이얼의 조합은 섬세함과 강인함의 매력을 모두 지녔다. 3천7백20만원. 문의 02-3479-1833 포토그래퍼 최인영 에디터 신정임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Shape Sensation

그 누가 완전한 원의 형태를 정의했을까? 에르메스 컷(Hermès Cut)은 완전한 원도, 각진 사각도, 육각 혹은 팔각도 아닌 에르메스만의 감성을 불어넣어 독특하게 커팅한 매끄러운 원형 실루엣의 기하학적 테마가 돋보이는 시계다. 정교한 제스처로 그려낸 날카로운 라인인 에르메스의 클래식함과 모던함, 그리고 세련미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기 때문. 일반적인 위치와 달리 1시 30분 방향에 대담하게 위치한 크라운뿐 아니라 래커 마감과 인그레이빙 H 디테일 등 아이코닉한 에르메스 워치 스타일을 증명한다. 스틸 또는 스틸 및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 없는 버전, 56개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한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에르메스 컬러 팔레트를 참고한 다양한 컬러의 스트랩으로 교체해 더 다채로운 룩을 즐길 수 있다. 에르메스 워치만의 독창성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갖춘 것은 물론 에르메스 매뉴팩처 무브먼트 H1912로 작동해 에르메스 워치만의 기술적 노하우도 듬뿍 담았다. 평균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542-6622



결국은 화이트

새 시즌 캐주얼부터 포멀한 룩까지 두루 어울리는 가장 하나를 추천한다면, 최상의 선택지는 바로 샤넬 플래밍 백이다. 클래식한 컬러를 잘 활용하는 샤넬답게 블랙 파이핑 디테일이 컬티드 화이트 램 스킨 소재를 견고하게 감싸 모던하면서도 남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 위로 부드럽게 흐르는 골드 체인은 우아함 속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화이트 특유의 깨끗하고 절제된 미학은 블랙보다 담대하고 핑크와 블루보다 고급스러우니 더욱 마다할 이유가 없다. 심플한 룩에 별다른 디테일 없이도 특별함을 더해줄 최고의 액세서리는 단연 샤넬 백이 아닐지,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Couture Touch

디올의 하이 주얼리는 디올 아틀리에의 쿠티르적 디테일과 섬세함이 녹아들어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감정을 전한다. 이번에 아티스틱 디렉터 빅투아르 드 카스텔란은 레이스를 다각도로 재해석한 디올 밀리 덴탈(Milly Dentelle) 컬렉션을 선보이며 디올 하우스의 하이 주얼리 디자인에 더욱 풍성한 매력을 불어넣었다. 크리스찬 디올의 밀리 라포레에서 영감받아 화려한 꽃이 풍성하게 피어난 몽환적인 풍경, 비대칭 곡선을 그리는 나뭇잎, 무성한 수풀 등으로 풍부한 자연을 표현하며 매혹적이면서도 유쾌한 세계를 주얼리로 승화시켰다. 화이트·옐로·핑크 골드에 컬러풀한 젤스톤과 진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세팅한 76피스톤의 특별한 하이 주얼리로 출시했다. 문의 02-3280-0104



SIZE MATTERS

Bronze Adventure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은 오메가의 가장 아이코닉한 워치 컬렉션 중 하나다. 올해 오메가는 모험 정신과 탁월함, 정확성에 특별한 디자인을 결합한 브론즈 골드 소재 신제품, 씨마스터 다이버 스페셜 브론즈 골드-버건디 에디션을 선보인다. 2020년 영화 <007 노 타임 투 다이>를 위해 출시한 씨마스터 다이버 300M 007 에디션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메가가 특별히 제조한 브론즈 골드 컬러는 물론 옥살릭 아노다이징 처리한 알루미늄 베젤 링과 다이얼 등 섬세한 디테일이 매력적. 오메가 마스터 코-액시얼 칼리버 8806으로 구동하며, 브론즈 골드 메시 브레이슬릿 또는 브론즈 골드 버클을 장착한 블랙 러버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하다. 문의 02-6905-3301



미니멀 룩에 포인트를 더할 미니 백 3.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큐브형 실루엣에 시그니처 스티치 디테일이 돋보이는 마이코 큐브 핸드백 가격 미정 메종 마르자엘라. 문의 02-3107-8061. 루이 비통 X 무라카미 리미티드 컬렉션으로 무지갯빛 모노그램 모티프를 입힌 코팅 캔버스 소재의 LV X TM 코로 코로 클러치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탈착할 수 있는 고트 스킨 소재의 끈으로 클러치 백,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 가능한 미노디에르 임 파스트 백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인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Best Lip Ever!

립스틱은 옷 스타일에 맞춰 유연하게 변신 가능하며 노력 대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특한 뷰티템이다. 매 시즌 발색력과 지속력은 물론 텍스처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나에게 맞는 최적의 립스틱을 찾는 것. 디올의 루즈 디올 베일 피니시는 매트한 제형이지만, 플로럴 립 케어 성분을 함유해 24시간 동안 입술을 촉촉하게 감싸준다. 코랄부터 핑크까지 총 10가지로 출시했으며 그중에서도 756 오간지는 레드 코랄로 취향을 타지 않는다. 약지로 얇게 스머지해 혈색을 더하거나, 립 라인을 넘나드는 오버 립으로 대범하게 마무리해보자. 3.4g 5만9천원. 문의 080-342-9500



Tea Time

향긋한 차 한잔의 여유를 선사할 티 포트 3.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와로브스키 로젠탈 시그널 컬렉션 티팟 티원형과 옥타곤 세이프에 핑크 스와로브스키 포인트 핸들을 더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배가했다. 약 750ml 7만원. 문의 1522-9065 바사 헤리티지 커피 팟 요슬 랩폼을 담은 형태로 보는 재미를 더했다. 본 차이나 소재로 제작해 가볍지만 높은 내구성이 특징이다. 약 850ml 14만5천원. 문의 02-2118-6932 에르메스 히포보일 컬렉션 티 팟 포슬린 소재에 비규칙적으로 새긴 피란 도트와 말 모티프 일라스트가 조화를 이룬다. 약 1,050ml 1백30만원대.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인영 에디터 신정임



예술의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다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 다양한 파트너십과 후원 활동을 펼쳐온 현대자동차가 '지역 미술 활성화'를 겨냥한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들을 공개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국내 공공 예술 기관과 해외 기관이 짝을 지어 공동 연구와 전시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Hyundai Translocal Series)'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구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초지역적 주제에 대해 함께 살펴봄으로써 연구와 창작 커뮤니티, 전시 등을 아우르게 된다. 이 시리즈의 막을 여는 첫 번째 교류는 청주(대한민국)-뉴델리(인도)-맨체스터(영국)의 삼각 편대가 이끈다.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와 19세기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국 맨체스터에 자리한 휘트워스 미술관(The Whitworth), 인도 국립공예박물관(National Crafts Museum & Hastkala Academy)이 손잡고 '섬유 공예와 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춰 한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 8인을 초청해 신작 커미션을 꾸린다. 이 교류 전시에는 오는 9월 4일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특별전에서 처음 만나볼 수 있으며, 내년 2월과 7월에 인도 국립공예박물관과 휘트워스 미술관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교류 기관은 '백남준아트센터(대한민국 용인)'와 '피나코테카 미술관(Phacoteca de São Paulo, 브라질 상파울루)'로 '미디어와 퍼포먼스'를 주제로 몰라치 거리를 극복하는 초지역적 교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단순한 순회전 형식을 넘어 각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과 초지역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포부에 걸맞은 행보가 기대된다. 글 고정연

HYUNDAI TRANSLOCAL SERIES

SB16 샤르자 비엔날레 (Sharjah Biennial) 2025: to carry

30년 넘는 여정 속 공고히

to carry a home; to carry a story; to carry a trade; to carry a wound; to carry equatorial heat; to carry resistance; to carry a library of redacted documents; to carry raptures; to carry change; to carry songs; to carry on; to carry land; to carry the language of the inner soul; to carry new formations; to carry the embrace of a river current; to carry sisterhood and communal connection; to carry the rays of a morning without fear



도시의 심장부를 수놓은 문화 예술 지구

흔히 '중동'이라 불리는 지역과 그 문화권을 나를 제대로 접한 건 꽤 오래전 두어 차례 찾은 '두바이 아트 위크'에서였다. 아트 페어란 '미술 작품'을 사고파는 본질적으로 상업적인 행사라고는 해도, 이를 계기로 다른 영역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록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당시 아랍 문화권을 엿보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서구에 경도된 시각과 지식을 지니고 있는지, 심지어 심미안에도 영향을 받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했다. '중동'이라는 표현은 서유럽을 기준으로 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당신이 페르시아의 고원 지대에 서 있다면 이

른바 중동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중서가 된다.' 타민 안사리(Tamim Ansary)라는 학자의 저서에 나오는 대목이다. 단초는 두바이였지만 어쩌면 이 지점에서 더 흥미로운 렌즈를 장착하게 된 전제는 샤르자에서 이뤄졌다. 마지막 두바이 체류에서 샤르자 비엔날레(SB13)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를 '비엔날레 산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교통 체증이 없으면 두바이에서 자동차로 20~30분이면 샤르자에 도착할 수 있다). 당시에는 배를 타고 '물길'을 건넜는데 이윽고 당도한 샤르자 도심(Sharjah City)의 비엔날레 주 전시장에 단

1 올해 16회를 맞이한 샤르자 비엔날레 2025(SB16)의 주제인 'to carry'를 담은 키 비주얼 이미지. 큐레이터는 5명(Alia Swastika, Amal Khalaf, Megan Tamati-Quennell, Natasha Ginwala, Zeynep Öz)이다. 2 UAE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중심부에 있는 문화 예술 지구. Courtesy Sharjah Art Foundation. 3 알 무레이자 스퀘어에 자리한 작품, 호세 곤잘레스 산토스 (Jorge González Santol),



번에 반했던 기억이 있다. 두바이와는 달리 낮은 스카이라인 속에 모래색 건축물에는 비엔날레를 꾸리는 조직인 샤르자 미술재단(이하 SAF) 본부와 더불어 캘리그라피 광장, 샤르자 아트 뮤지엄 등이 자리하고 있다. 5명의 큐레이터가 함께한 올해 비엔날레(SB16)의 주제는 'to carry'로 2백 명 넘는 다국적 작가가 참여했는데, 신작 커미션만 2백 점이 넘는다.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사랑하는 비엔날레인 이유가 있다.



옛 장터와 학교, 그리고 비행접시 닳은꼴... 다채로운 공간



세계화 흐름이 거셌던 1990년대, 지구촌 미술계에도 비엔날레 열풍이 불었다. 샤르자 비엔날레는 1993년 탄생한,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비엔날레다.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열린 1995년보다 2년 앞선 출발인데, 둘 다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하지만 광주를 둘러싼 제반 여건은 몹시 어렵게 느껴진다). 샤르자의 통치자 알 카시미(Ali Qasimi) 가문의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는 역사학자이자 철학 박사 출신의 지식인으로 1970년대 유전의 발견으로 이어진 원유 수출과 더불어 전

'Internal Embrace', 2023~2025.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4 Marwan Kassab Bachl, 'Three Palestinian Boys', 1970. Oil on canvas, 130x162cm. 5 Citra Sasmita, 'Timur Merah Project XV: Poetry of The Sea, Vow of The Sun', 2024.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Caligraphy Museum, Sharjah, 2025. 6 홍콩 출신 작가 엘렌 파우 (Ellen Pau)의 퍼포먼스 'Terroir'(2024). 커미션 작품. Courtesy the artist and Kiang Malingue Gallery, Hong Kong. Performance view: Sharjah Biennial 16, Old Al Jubail Vegetable Market. 7 샤르자 도심 지역의 건축물 'The Flying Saucer'에 설치된 호주 작가 대니얼 보이드의 작업.



자리 잡은 예술의 메카

'샤르자(Sharjah)'라는 고유명사를 접하면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게 어디냐?"라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아랍에미리트연방(UAE)을 구성하는 7개 토후국 중 하나인 샤르자는 면적(2,590km²)이 서울시의 4배 정도 되지만 UAE 국토에서는 지분이 아주 적고(3.3%), 인구가 성장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2백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다수는 UAE라고 하면 아부다비, 두바이 같은 토후국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문화 예술계 종사자나 현대미술 애호가라면 '샤르자'라는 단어에 반색하는 경우가 많다. 큰 형님 격인 아부다비가 '행정 수도'로 중심을 잡고 있고, 두바이가 '무역·관광 수도'로 각광받는다면, 샤르자는 '문화 수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일찍이(1998년) 샤르자를 '아랍의 문화 수도'로 지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현대미술 생태계에서 아랍 문화권을 물린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 있는 비엔날레가 존재감을 뽐낸다. 3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전성기를 거둬가고 있는 샤르자 비엔날레가 올해로 16회를 맞이해 4개월 넘는 여정을 펼친다(2.6~6.15).



모래 둔덕과 사막에 펼쳐지는 고요한 세레나데

샤르자 중심부의 멋스러운 건물들은 물론 도심에서 멀지 않은 역사적 공간도 있지만 장소성이 부각되는 이색적인 풍경과 어우러지는 '설치 미술'을 비엔날레 기간에만 즐길 수 있는 외딴 공간도 있다. 올해 비엔날레의 경우, 작품 수가 6백50여 점, 전시장(venue) 수가 크게 17개로 나뉘어 샤르자 전역에 흩어져 있어서다. 물론 전형적인 비엔날레 투어는 녹록지 않은 여정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특별한 분위기를 선사하고, 작업과의 조우가 잘 이뤄졌을 때 놀라에 깊이 남는다. 같은 작품도 장소에 따라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경



8 Hugh 'Brier Patch', 2022. Commissioned by Madison Square Park Conservancy, New York. 황량한 모래 둔덕에 펼쳐진 'Buried (ghost) Village'에 설치된 작품. 9 Pratchaya Phinthong, 'We are lived by powers we pretend to understand (process)', 2024.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10 지난 2022년 부산비엔날레에도 선보였던 패총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작업. Megan Cope, 'Kinyingarra Guwinyanba', 2024. 11 Rita Mawuena Benissan, various works, 2024.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Al Hamriyah Studios, Sharjah, 2025. Image courtesy of Sharjah Art Foundation. Photo by Danko Stjepanovic



를 형상화한 조각 'Brier Patch'(2022)도 그런 사례다. 원래는 뉴욕 매디슨 스퀘어 파크의 커미션 작업인데, '유령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황량한 모래 둔덕으로 왔다. 올해 처음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쓰였다는 이 쓸쓸한 둔덕은 미국 사회에서 흔히 보이는 '교육에의 장벽'을 뜻한다는 그의 작업과 철떡꿇음이 따로 없다. 영구 설치로 남을 예정으로, 작가의 말처럼 '시간과 함께 변해갈' 모습이 궁금해진다. "아마도 (이곳에서는) 더 색이 밝고 단단해질지도 모르겠네요."

바다의 숨결을 느끼며 다음을 기억하다

오프닝 주관이 아니더라도 'March Meeting', 'April Acts'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샤르자와 가까운 서쪽 해안과 왕복 3시간 넘게 소요되는 동쪽 끝 바닷가에 비엔날레가 어어지니 말이다. 후르 알 카시미 대표의 설명대로 아라비아(페르시아)만에 걸쳐 있는 알 함리야(Al Hamriya) 스튜디오와 인도양을 향하는 옛 얼음 공장인 칼바 아이스 팩토리(Kalba Ice Factory)가 바로 그



12 Nadiah Barnadhaj, 'The Harvest', 2023.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Al Hamriyah Studios, Sharjah. Photo by Ivan Erofeev 13 Adellita Husni-Bey, 'Like a Flood', 2025.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and made possible thanks to the Italian Council programme (2024), with Alserkal Arts Foundation, Dubai. 14 바다가 보이는 칼바 아이스 팩토리의 야외 광장. * 3-5, 7-10, 13, 14 * 그 밖의 이미지 제공: Sharjah Art Foundation

이더가 5명이다 보니 산만한 감도 없지 않지만, 동시에 다각적인 해석의 창을 열어놓은 'to carry'라는 전시 주제처럼 풍부하기도 하다. 결국 예술을 감상한다는 건 나의 해석으로 체화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에 'to carry' 다음에 붙는 명사의 묶음은 저마다 달라질 테고 말이다. 아마도 올해 오프닝 주간에 진행된 프레스+작가 투어에 거의 매일 수백 명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몰린 이유가 아닐까(첫 주간 비엔날레 방문객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로 샤르자 지역민들도 찾고 즐기는 축제로 성장해나가려면 많은 관문이 필요할 것 같다. 두바이로 출퇴근하느라 몇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집된 샤르자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물론 후르 알 카시미의 말에 동의한다. "그래도 우리에게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나?" 글 고정연(샤르자 현지 취재)





Interview with 후르 알 카시미 샤르자 미술재단 대표

‘샤르자’ 브랜드를 세상에 각인시킨 변화의 리더십

영국 현대미술 전문지 〈아트 리뷰〉는 해마다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을 선정하는 ‘파워 100’을 발표하는데, 최근 순위에서는 샤르자 비엔날레(Sharjah Biennial)를 이끌어가는 후르 알 카시미가 1위에 올랐다. 해당 연도를 전후한 활동량과 횟수에 따라 순위는 오르내리기 마련이지만 샤르자를 비롯해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미술계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띄기는 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왕족 출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후르 알 카시미는 확실히 다른 결의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1980년생으로 불과 20대 초반에 미술계 전면에 등장한 그녀는 샤르자 비엔날레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차근차근 끌어올리며 세간의 의심 어린 눈초리를 피해 가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기획자’로 ‘리브롤’을 받으며 몸이 2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후르 알 카시미가 어린 시절 진지하게 품은 장래 희망은 ‘요리사’였다. 사방이 책으로 가득한 샤르자의 집무실에서 만난 그녀는 “지금도 요리를 즐겨 하느냐”는 질문에 배시시 웃었다. 사실 샤르자 미술재단(SAF)이 들어선 예술 지구의 알 무레이자(AI Mureijah) 광장에는 앙증맞은 팻말을 입구 앞에 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녀의 ‘작품이다. 올해 샤르자 비엔날레(SB16) 오프닝 때 프레스 행사의 만찬 장소이기도 했던 ‘펜(Fen Café & Restaurant)’. 그간의 방문자들이 매겨준 높은 평점만큼이나 실제로 맛도 준수한 컨템퍼러리 레스토랑으로 그녀가 메뉴 개발에도 참여한다고. “처음에는 셰프를 꿈꿨고, 그다음에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확장 시절 미술 선생님이 ‘아티스트 자질이 풍부하니 미술학교에 가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하셨죠.” 그리하여 후르 알 카시미는 영국 런던의 예술학교 슬레이드에 진학한다(나중에는 RCA에서 현대미술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리고 졸업한 이듬해인 2003년, 그녀는 당시 탄생한 지 10년 된 샤르자 비엔날레의 공동 예술감독을 맡았다. UAE 토후쿠 샤르자를 이끄는 알 카시미 가문의 젊은 딸이 비엔날레 감독이라니, 호사가들이 입방아 찧기 좋은 소재였다.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과 그래도 불거지는 호기심이 공존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당시의 비엔날레를 보지 못했지만 행사가 무사히 치러졌음에도

많은 이들은 ‘공주님’이 잠시 머물다가 떠나버리거나 남더라도 굳이 실무를 하지는 않겠지 하는 편견을 지녔던 것만은 쉬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모국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축제에 ‘진심’이었다. 머뭇거리기는커녕 2009년 SAF를 설립하면서 샤르자 비엔날레의 격을 끌어올리고 내실을 다지는 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예술감독으로의 성장 애초에 기획자이자 리더로서의 노선을 택한 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슬레이드 시절에도 그녀는 뉴 미디어 전시를 공동 기획하는 등 아티스트들에게 ‘전시 공간’을 꾸며주고 기획을 할 때 보람과 희열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의 운명을 바꾼 계기는 1972년부터 샤르자를 통치하고 있는 부친인 H. H. 세이프 술탄 빈 무함마드 알 카시미와 2002년 함께 찾았던 독일 카셀의 현대미술 축제 도쿠멘타였다. 당시 나이지리아 출신의 큐레이터이자 시인인 오쿠이 엔위저(Okuwi Enwezor)가 예술감독을 맡았던 도쿠멘타11은 기존의 유럽+백인+남성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난 전환점으로 평가되는데, 후르 알 카시미에게도 엄청난 영감으로 다가왔다.

“팔레스타인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까지 다국적 작가들이 참여하고 ‘국가’로 나눠지 않는 하나의 축제 현상이었죠. 저는 ‘우리에게도 비엔날레가 있지 않냐. 우리도 이런 기조로 꾸러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를 계기로 그녀는 오

1 SAF 설립자이자 대표 후르 알 카시미(Hoor Al Qasimi), 1980년생으로 샤르자 비엔날레, 베니스 비엔날레 UAE관, 라호르(Lahore) 비엔날레 등 글로벌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를 역임했으며 올가을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Aichi Triennale), 내년 시드니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았다. 이미지 제공: 아이치 트리엔날레 Photo by SEBASTIAN BÖTTCHER
2 싱가포르 출신의 사진작가이자 영상 작가 존 클랭(John Clang)은 올해 샤르자 비엔날레에서 중국 전통 운영하던 자미두수를 활용한 퍼포먼스인 ‘Reading by an Artist’를 선보였다. 샤르자 비엔날레의 초창기 운을 차트로 그려보기도 했는데 ‘세상과 다르게 갈 길을 가는 독립성이 보였다’고 말했다.
3 SAF 임규. **4** 후르 알 카시미 대표의 카리어 여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큐레이터 오쿠이 엔위저(Okuwi Enwezor), 비서구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카셀에서 열리는 저명한 현대미술 행사인 도쿠멘타(2002)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2019년 별세했다. Photo by Chika Okeke-Agu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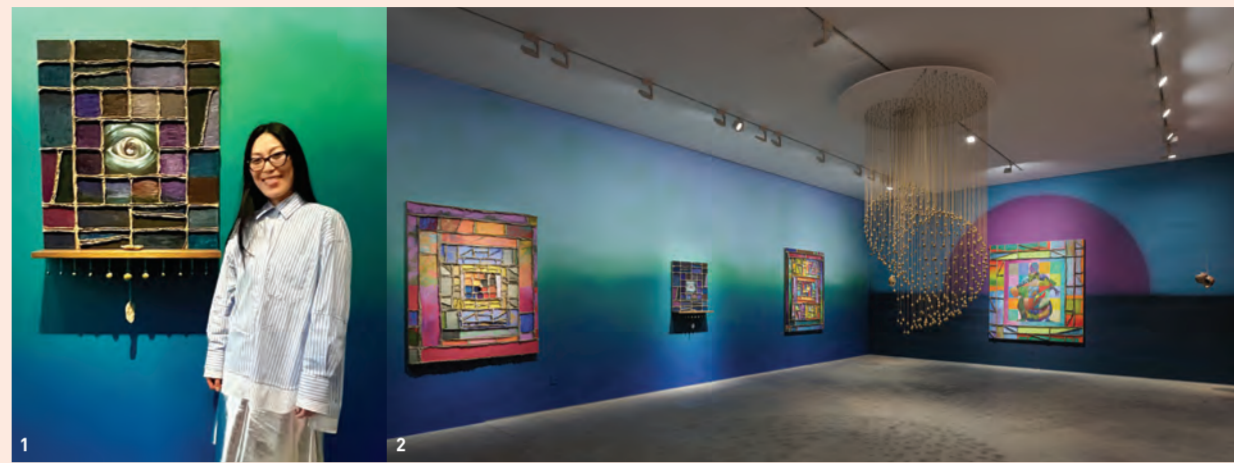
쿠이 엔위저와의 인연을 쌓게 되고 2018년에는 샤르자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그를 초빙했다. 흔쾌히 승낙했지만 이미 몸이 아팠던 그는 2019년 작고했다. 벌써 전 그는 후르 알 카시미에게 바통을 넘겼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회의도 많이 한 상태였고, 그는 매우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병원에 찾아가셨을 때 그는 ‘내가 해야 한다고 말했고, 제게는 그게 유인 같은 거였죠.’ 그렇게 후르 알 카시미는 오쿠이 엔위저의 못다 한 창조적 비전을 이어받았는데, 팬데믹 여파로 결국 이 전시는 샤르자 비엔날레 개최 30주년인 2023년(SB15)에 열렸다. 주제는 비서구권의 동시대 미술을 포스트식민주의 시각으로 접근한 ‘Thinking Historically in the Present’.

이제 그녀는 샤르자의 젊은 상징 같은 존재다. 명실공히 세계적인 미술 행사로 자리매김한 샤르자 비엔날레의 위상을 발판으로 그녀는 큐레이터로서의 역량도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내년 시드니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을 맡았고, 가깝게는 올가을 일본 아이치(Aichi) 트리엔날레에서 또 다른 결의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마 60차레도 넘게 일본을 방문했을 거예요. 아이치도 첫 비엔날레 때 그냥 구경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뭐가 해볼 수 있겠다 싶었죠.” 일본에 대해서는 언어를 배웠고 덕분에 문화도 더 친숙해졌다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글 **고성연**(샤르자 현지 취재)



#사유를 품고 나래를 펼치는 매혹의 조형, 제이디 차(Zadie Xa)

현대미술가 박찬경의 만신 김금화를 내세운 작업을 접한 적이 있다. 어쩌서 토속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그가 쓴 글이 담긴 도록을 봤는데,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가톨릭 집안의 고층 아파트 주민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 특히 전통 종교 문화는 애초부터 낯선 것이라는 대목에서 ‘공감’ 어린 고개를 끄덕이다 결국엔 ‘우리 것에 대한 외면을 자성하게 됐다. 특히 “미루면 미룰수록 점점 더 엄숙한 얼굴로 떠오르고, 결국 치우지 않은 돌에 걸려 넘어지듯 언젠가 후회하게 될 그런 것”이라고 했던 대목에서. 흥미롭게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나고 자란 제이디 차(Zadie Xa, b. 1983)는 우리 다수가 일삼아온 ‘전통에의 외면을 곱씹게 만드는’ 작업을 한다. 이민자 2세로 자라면서 정체성을 고민했던 그녀는 어머니가 들려주는 민담, 설화, 전설 등을 접하고 매혹됐는데, 훗날 작가로서 그에 영감을 받은 캐릭터를 작품에 등장시킨다. 예컨대 스페이스K 서울에서 열렸던 개인전 <구미호 혹은 우리를 호리는 것들>에서 구미호를 미모의 사기꾼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할머니



1 샤르자 비엔날레(SB16) 오프닝 주간에 알 함리아(AI Hamriya) 스튜디오에서 만난 제이디 차 작가와 그녀의 신작 회화 작품. **2** Zadie Xa with Benito Mayor Vallejo, 'Moonlit Confessions Across Deep Sea Echoes: Your Ancestors Are Whales, and Earth Remembers Everything', 2025. Courtesy of Thaddaeus Ropac.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AI Hamriya Studios, Sharjah, 2025. Photo by Danko Stjepanov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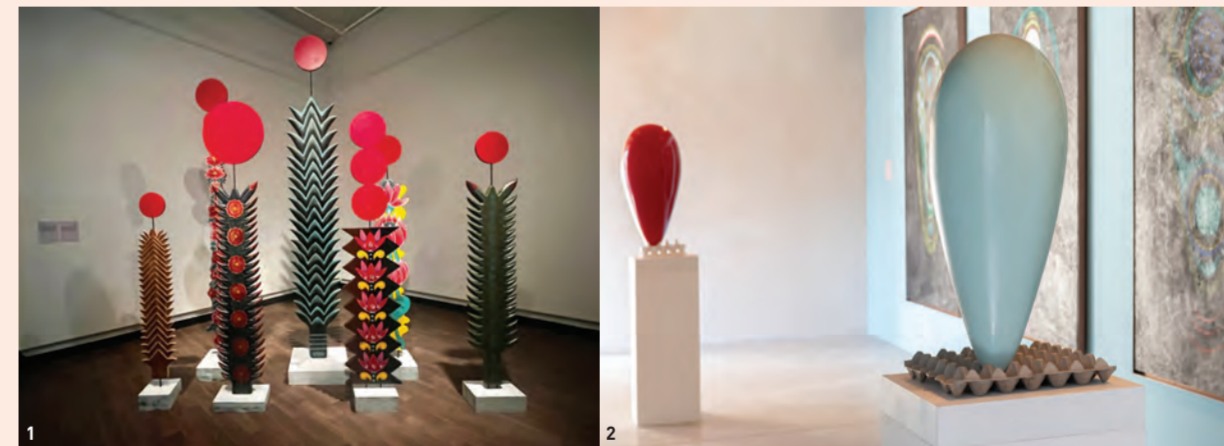
니의 모습으로 그려낸다. “전 부적처럼 행운을 가져다주거나 보호해주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샤르자에서 만난 제이디 차는 1천 개의 황동으로 만든 종(bells) 설치 작업을 가리키며 “(액을) 막아주지만 동시에 장난스럽게 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적 사머니즘이 익숙하지 않았을 환경에서 자란 제이디 차는 어쩌서 이런 주제에 주목하게 된 걸까? 그녀는 30대 초반에 본 김기영 감독의 <이어도>(1977)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영화 속 무속인 캐릭터는 K-

컬처 같은 대중문화에서 접하는 가녀린 동양 여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국 여자들을 닮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회화를 할 때는 인물을 비롯해 그녀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구상으로 선보인 데 반해, 이번 비엔날레에는 한동안 작업을 힘들어하다 밴쿠버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는 아름다운 추상 회화도 첫선을 보였다. 몽환적 색조의 회화와 조각, 사운드 작업이 어우러진 그녀의 전시 공간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뿜어낸다.

Artist in Focus

작금의 비엔날레의 홍수 속에서 서구 중심의 현대미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예술을 소개하겠다는 포부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 누군가의 우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데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샤르자 비엔날레의 강점은 자신의 작업을 해나가는 작가들과 손잡고 2백 점 넘는 신작 커미션(올해 기준)을 내놓을 정도로 풍부한 콘텐츠, 그리고 협업 과정에서 병렬적인 소통이 이뤄졌다는 평이 나온다는 점이다. 비엔날레 오프닝 주간에 큐레이터, 작가, 저널리스트 등이 생태계에 속한 여러 영역의 다국적 관계자들이 도심과 사막, 해안가를 수놓은 다양한 전시 공간을 오가면서 서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주어진다든 점에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SB16에 신작 커미션 작품을 선보인 한국계 작가 2인을 만나봤다.

#일상성과 우리네 ‘송고’가 맞닿는 지점들, 김상돈(Sangdon Kim)



베를린에서 순수 미술을 전공한 김상돈(b. 1973) 작가는 지역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한다.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장인들과 협업하고 워크숍도 진행하며 지식과 내공을 쌓았다. 일부러 전통과 현대를 잇는 연결 고리를 찾는다고보다 그 과정에서 체득한 것들을 유기적으로 풀어놓는다. 그가 지난 2021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담아낸 신작 ‘행렬은 진도의 전통 장례 문화인 ‘다시례’를 모티브로 삼았고, ‘카드’는 세심하게 만든 남도 꽃상여를 실제

1 김상돈(Sangdon Kim), 'Forest', 2024. Commissioned by Sharjah Art Foundation.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Calligraphy Square, Sharjah, 2025. Photo by Ali Alfadly
2 Sangdon Kim, various works from 'Egg that has spent the night', 2022-2023. Installation view: Sharjah Biennial 16, Bait Al Serkal, Sharjah, 2025. Photo by Danko Stjepanovic

로 마트 같은 쇼핑 공간에서 쓰는 카드 위에 올려놓은 작품이다. 당시 공식 후원 업체인 이탈리아 섬유 기업이 제공한 슈퍼카 내장재로 쓰이는 고급 원단에 ‘지옥에서 온 부적을 과감히 그려 넣었다. 팬데믹이 지구의 일상을 강타한 시기에 위기를 극복하고 치유를 불러오는 집단적 카타르시스를 유쾌하게 버무려낸 작품들이다. 우리 조상의 근원에 맞닿아 있고 한국인의 영혼에 내재된 사머니즘은 그의 다원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렇듯 카타르시스를 불러오는

대안적 방안이 된다. 올해 샤르자 비엔날레에서는 꽃상여가 아니라 ‘단청을 활용한 형형색색의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 숲(Forest)’이라는 신작 커미션 작품을 선보였다(샤르자 문화 예술 지구에 자리한 캘리그래피 뮤지엄 소재). 알록달록한 색조가 절로 눈길을 사로잡는 이 작업 역시 작가의 연구에서 비롯된 창조물이다. 여기서 멀지 않은 전시장(Bait Al Serkal)에 소개된 김상돈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은 ‘알이 보낸 밤(Eggs that has spent the night)(2022-2023)’이라는 제목의 유리공예 작품 시리즈다. “저는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원형적인 심벌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알’로 표현된 거죠.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서는 알 모양의 항아리로 무덤을 만들기도 했다고 해요. 타임캡슐처럼 말이죠.” 커다랗고 매끄러운 알에서 느껴지는 뭔가 기복적인 영연은 그 받침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달걀관에 알이 스스럼없이 서 있는 모양새라니. “자본주의 체제에서 우리의 거대한 기억을 다시 요리해서 먹을까?”라는 그다운 유태가 결집된 설명이 돌아온다. 글 **고성연**



뉴욕 휘트니 미술관 김 크리스틴 선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

메아리로 가득 찬 세상의 울림

“소리를 반드시 귀로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촉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의 개념으로 여길 수도 있죠.” 독일 베를린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김 크리스틴 선(Christine Sun Kim)은 자신의 2015년 TED 토크 <매혹적인 수화의 음악>에서 설명했듯 소리를 비정각적·정치적 차원에서 조명하는 작업을 해왔다. 한국인 부모를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그녀의 모국어는 미국 수어(ASL)다. 작가는 수어와 음성언어, 소리의 관계를 탐구하고, 여기에서 불거지는 소통의 복잡성을 다룬다. 그 바탕에는 작가, 이민자, 어머니, 그리고 데프 커뮤니티(Deaf Community)를 대변하는 사회운동가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세상과 소통해온 시간이 담겨 있다. 뉴욕 휘트니 미술관 개인전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2. 8~7. 6)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한 드로잉, 벽화, 영상, 설치 등 작업 90여 점을 선보이며,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그녀만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전시는 먼저 눈으로 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벽에 그려진 사선과 음표가 공간에 더하는 '소리 없는 운율'을 마주하게 된다. 일반적인 악보와 달리, 작가의 오선은 미국 수어의 표현을 따라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어에서 악보의 오선은 엄지손가락을 접은 채 나머지 네 손가락을 얼굴 앞에서 가로질러 이동하는 동작으로 표현되며, 4개의 선을 공간에 남긴다. 벽면을 부유하는 음표들은 이 선에 살짝 걸쳐 있거나, 닿지 못한 채 여백을 떠도는데, 이를 실제 연주로 옮기다 보면 들릴 듯 말 듯 미세한 소리가 날 것이다. 작품명 '고스트 노트(Ghost(ed) Notes)'(2024)는 본래 '명확한 음높이가 없어 뚜렷하게 들리지 않는 음을 뜻하는 동명의 용어에서 따왔다. 작가는 아주 작게 연주되어 거의 리듬으로만 존재하는 이 소리를 '고스팅(ghosting,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작스레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과 연결 짓는다. 이처럼 들리지 않는 음표로 구성된 악보는 청인 중심 사회에서 소외되어온 개인적 경험을 반영한다. 동시에,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을 암시하기도 한다.

공간적 언어, 음악과 수어가 전하는 이야기
김 크리스틴 선 작가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음악 기보법을 차용해 소리를 그림으로 기록하게, 미국 수어의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형태를 조형화하는 식이다. 이번 뉴욕 휘트니 미술관 전시의 중심이 되는 '메아리(Echo)' 연작은 후자에 해당한다. 메아리는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용어로, 반사된 소리가 다시 전달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소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소통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어 통역을 거치는 작가의 소통 과정에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시간차와 반복은 의미가 반향되어 전달되는 메아리와 유사한 구조를 띤다. "지금 제 영역사 베틀(Beth)도 제가 하는 말을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도 수어

1 뉴욕 휘트니 미술관 8층에서 진행 중인 김 크리스틴 선의 전시 'Ghost(ed) Notes'(2024)가 그려진 양 벽 사이의 형태적 캔버스 작업 'All Day All Night'(2023)이 전시돼 있다. Photo by David Tufino **2** 3층 전시장은 벽화 'Prolonged Echo'(2023)와 'Long Echo'(2022) 연작 등이 공간을 가득 채워 크고 작은 메아리가 관람객을 둘러싸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Mural: 'Prolonged Echo', 2023. From left to right: Long Echo, 2022; Long Echo, 2022. Photo by Ron Amstutz **3** 미국 수어(ASL)에서 얼굴 표정과 손동작이 어떻게 결합되어 의미를 형성하는지 탐구하는 'Tables and Windows'(2016)는 파티니 토마스 마더와의 협업 작품. Installation view of Soundtracks (SFMOMA, San Francisco, July 15, 2017~January 1, 2018), Christine Sun Kim and Thomas Mader, Tables and Windows, 2016. Collection of the artists, courtesy SFMOMA, François Ghebaly Gallery, and WHITE SPACE. Photo by Katherine Du Tiel

4 1층 전시장의 'ATTENTION'(2022) 설치 모습. Christine Sun Kim and Thomas Mader, ATTENTION, 2022. Photo by Ron Amstutz **5** 'Degrees of Deaf Rage'(2018) 연작. 소리를 중심으로 작동되는 사회에서 작가가 겪어온 상황을 인포그래픽 차트로 나타낸 드로잉으로, 일상에서 축적된 분노의 정도를 각도로 변환해 제시한다. 예컨대 여행 중 '비행기의 영화에서 자막이 제공되지 않을 때'는 180도의 분노(Straight up Rage)로 나타내는 등 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Photo by David Tufino * 1, 2, 4, 5 Installation View of Christine Sun Kim: All Day All Night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February 8~July 6, 2025). 이미지 제공, 휘트니 미술관

로 메아리칠 거예요. 우리 사이의 공간에는 이런 메아리들이 존재해요." 수어에서 메아리치는 소리의 파동은 반사면을 형성할 수직으로 세운 손바닥에 다른 손의 네 손가락이 닿게 한 뒤,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멀어지는 동작으로 나타낸다. 작가는 이러한 손동작의 궤적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전시장 하나를 가득 채웠다. 공간을 집어삼킨 듯 커다란 메아리에 작은 메아리들이 반복적으로 중첩되며 다시 하나의 거대한 메아리를 이룬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인포그래픽 또한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서는 소통을 위해 작가가 애용하는 방법 중 하나다. 목탄과 오일 파스텔로 그린 드로잉 작품들은 또박또박 적힌 손 글씨, 재료의 번짐과 얼룩, 줄을 그어 실수를 수정한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더 친밀하게 다가온다. 항목별로 적힌 작은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는 과정은 보다 큰 집중력과 정성을 요하는데,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이들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닌,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간결한 문장으로 이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Shit Hearing People Say to Me'(2019), 'Degrees of Deaf Rage' 연작(2018) 등 작품명에

등장하는 평소 섞인 문구는 유머로 희석되었지만, 그 안에는 데프 커뮤니티가 겪어온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이 담겨 있다(이 커뮤니티는 청각 장애 유무로 특징짓는 게 아니라 '미국 수어라는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대문자 'D'를 사용해 'Deaf'로 표기한다).

김 크리스틴 선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독일 출신 작가로 그녀의 파트너이기도 한 토마스 마더(Thomas Mader)와 협업해 완성한 'ATTENTION'(2022)은 주먹을 끝거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수어 동작에서 착안한 키네틱 조각으로, 선풍기로 작동하는 양팔이 없 없이 움직이며 부단히 소통을 시도하는 과정을 담았다. 중앙에 놓인 비어의 표면은 이들의 반복적 시도 끝에 점차 달아가며, 지속적인 노력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이끌어내는 변화를 드러낸다. 여기에는 작은 울림일지라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이라는 단단한 믿음이 존재한다. 메아리치는 세상에서 그것들이 언젠가 더 큰 울림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김 길영우(뉴욕 통신원)



Check Wrist

남녀 모두 착용하기 좋은 브레이슬릿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그라프 라운드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총 5.4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며 심플한 디자인을 자랑해 데일리로 착용하기 제격이다. 4천6백76만원. 문의 02-2256-6810
포렐라도 품품닷 브레이슬릿 한쪽 면에는 총 0.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다른 쪽 면에는 화이트 머더오브펠을 세팅해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불가리 비제로윈 뱅글 브레이슬릿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받아 탄생했으며 우아한 무드를 선사하는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나선형 디테일을 더하고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파베 세팅했다. 2천9백50만원. 문의 02-6105-2120
피아제 포재선 오픈 뱅글 브레이슬릿 눈부신 광채를 발산하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2개의 디테일이 브레이슬릿 양쪽에서 자유롭게 회전해 모던함을 부각한다. 2천4백만원대. 문의 1668-1874
다이아니 벨 에코프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디자인에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아 남녀 누구나 착용 가능하다. 18K 로즈 골드 소재로 완성해 우아한 맛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샤넬 최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미니 브레이슬릿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쉐플 모티프가 특징으로, 다른 브레이슬릿과 다양하게 레이어드하기 좋다. 18K 화이트 골드와 총 1.28캐럿 다이아몬드의 심플한 조화가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티파니 티파니 락 네로우 뱅글 사랑하는 이와 약속을 상징하는 자물쇠를 모티프로 한 뱅글로 모던하고 도화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18K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조화를 이루며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가미했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에디션 **윤자경**

Get

The

List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제안.
PHOTOGRAPHED BY YI JU HYUK



OMEGA
옐로 골드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과 자개 다이얼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을 부각한다. 올리브 그린 레더 스트랩의 색감이 매력적인 드 빌 프레스티지 34MM 3천1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FENDI
아이코닉한 바게트 백의 더 큰 버전으로 2025 S/S 쇼에서 부드럽고 해체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 등장한 도브 그레이 나파 가죽 소재의 맘마 백 미디엄 4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DIOR JOAILLERIE
(워부터) 다올의 아이코닉한 장미 모양 핑크 골드 소재에 1.39캐럿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로즈 디올 바가텔 브레이슬릿, 핑크 골드 소재에 0.07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디올 꾸뛰르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문의 02-3280-0104



LORO PIANA
고급 카프 스킨 소재로 로로피아나 특유의 정교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우아한 실루엣의 엑스트라 포켓 백. 실용적인 스트랩으로 숄더백이나 클러치 등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다. 2백82만원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CHLOÉ
기자와 사진작가의 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미디엄 사이즈의 카메라 백. 부드러운 버펄로 가죽으로 만들었으며 베지터블 태닝을 거친 자연스럽고 사이니한 마감 처리가 빈티지한 매력을 준다. 가격 미정 **클로에**. 문의 02-6905-3670



CHANEL
보기에도, 신기에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라피아 소재에 베이지 컬러로 포인트를 더한 플랫 슈즈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LOUIS VUITTON
일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를 대표하는 컬러풀한 색상으로 경쾌하게 재해석한 모노그램 모티브를 더해 생기 넘치는 버전으로 선보인 천연 카우하이드 가죽 소재의 스피디 반들리에 25 핸드백 4백40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GRAFF
(워부터) 아름다운 나비의 실루엣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컬렉션 더블 파베 다이아몬드 링 1천1백62만원. 마치 나비 세 마리가 나는 듯한 모습을 표현한 그라프 버터플라이 실루엣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1천3백74만원 모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성장민**

Essentials For Him

이번 시즌 내내 함께하고 싶은 메인 패션 하우스의 감각적인 남성 백과 슈즈.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위부터 차례대로) 환경과 인류의 조화를 생각하며 미래 지향적, 기술적 혁신 비전을 제시하는 건축 회사 MAD와 실비아 멘투리니 펜디의 대화에서 탄생한 스몰 피카부 아이 씨 유 백 1천만원대, 스포티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MAD와의 협업 제품인 러버 셀 디테일의 슬림 온 스니커즈 1백만원대 모두 펜디. 문의 02-544-1925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디테일을 가미해 영한 감성을 지니는 LV X 팀버랜드 앵클루츠, 바렌 듯한 모노그램 패턴과 콤팩트 라인 리이 조화를 이루는 스티머 30, 하우스의 클래식한 스티머 백의 실루엣을 메신저 백 스타일로 풀어내 활용성을 더한 스티머 크로스 보디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간치니 클래식스가 2개 달린 넓은 가죽 스트랩으로 가방을 감싸는 듯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헤머드 카프 스킨 소재의 허그 브리프케이스 3백65만원, 버클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스웨이드 카프 스킨 소재의 허그 버클 하이브리드 스니커즈 1백19만원, 감각적인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스웨이드 간치니 오너먼트 하이브리드 드라이버 가격 미정 모두 페라기모. 문의 02-3430-7854



(위부터 차례대로) 화이트 마이크로 피버와 메시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화이트 러버 솔로 바닥을 완성한 DIOR B44 블레이드 러너 스니커즈, 블랙부터 그레이까지 은은한 그레데이션이 특징인 라이더 2.0 백백 모두 가격 미정 다올 맨.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윤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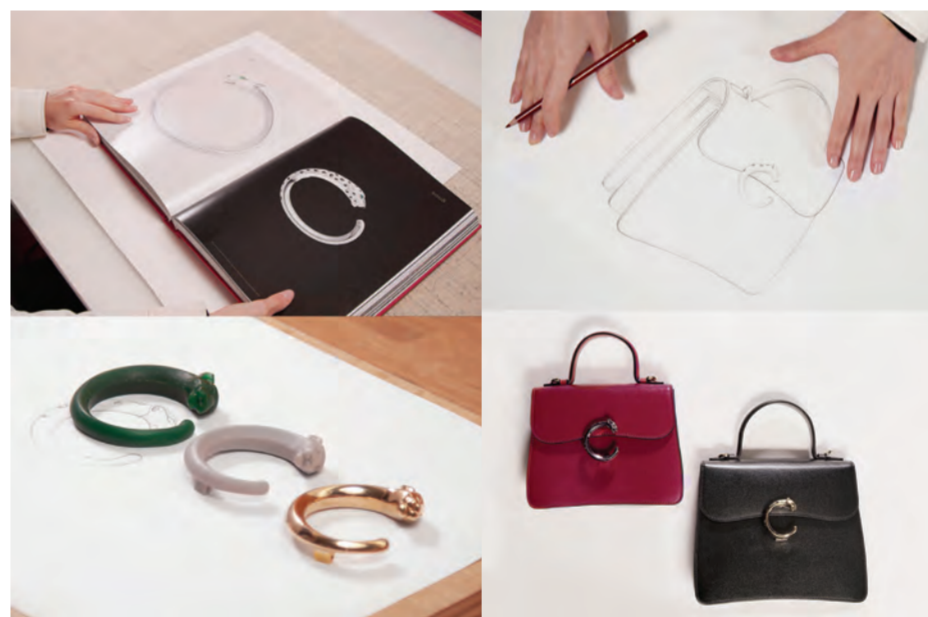


에디터 윤자경



Intense Elegance

사다리꼴 보다, 섬세한 그레인 레더, 그리고 잔느 투상의 유산을 일깨우는 주얼리 잠금장치까지. 메종이 재해석한 팬더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팬더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만의 고귀함과 우아함을 극대화한 아이코닉한 팬더 백이 탄생할 수 있었다. 까르띠에 팬더 백은 최상의 송아지가죽으로 제작된다. 이 가죽을 세척해 태닝을 거치고 이후 여러 단계로 이뤄진 기능적 공정이 진행되면서 가죽에 팔멜라토(Palmelatto)라 불리는 물결치는 그레인 효과를 더한다. 이 그레인 텍스처와 은은한 광택은 매우 섬세한 장인 정신이 요구되는 작업이며 팬더 백을 더욱 고귀하게 보이도록 하는 초석이 된다. 여기에 팬더 백에 가장 아이코닉한 포인트를 더할 버클을 장착하면 완벽한 팬더 백이 완성된다. 팬더의 머리를 뱅글 형태의 잠금장치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사실적이고 순수한 느낌은 물론 독보적인 입체감을 부여한다. 또 백의 모든 부분에 생기 넘치는 팬더의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 부속품을 모두 핸드 폴리싱해 더욱 세련되고 반짝이는 아트피스 에나멜 잠금장치를 매치한 미니 사이즈 핸들 백, 4 페일 핑크 컬러에 화이트 골드 잠금장치로 완성한 미니 톱 핸들 백.

수한다. 가죽의 원산지와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인적자원을 존중하고 가죽 재료 생산 환경을 보존한다. 그뿐 아니라 가죽 제품 공급 업체가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한 유럽연합 내에서 제품 대부분을 공수한다. 하이 주얼리 메종의 품격 있는 선한 영향력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 장인 정신과 주얼리 제작 노하우는 물론 윤리적인 제작 체인으로 완성된 유연한 실루엣과 여성스러운 정제미가 돋보이는 팬더 C 드 까르띠에 백은 스몰과 미니 모델, 두 가지 사이즈로 출시되며 여기에 걸치거나 손으로 들 수 있어 데일리 백으로 활용 가능하다. 블랙·체리·레드·그린·페일 핑크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모든 가방에 이니셜과 날짜를 골드 포일로 핫 스탬핑하거나 인그레이빙 가능해 취향껏 퍼스널라이징할 수도 있다. 문의 1877-4326 에디터 서정민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잔느 투상은 1940년대 팬더를 자신의 시그니처로 선택했다. 그녀는 대담하고 매력적인 팬더 조각을 만들어냈고, 이는 훗날 오랜 시간 동안 까르띠에 주얼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 아이코닉한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아티스틱 디렉터 말린 유슨(Marlin Yuson)이 이끄는 액세서리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고귀하고 우아한 까르띠에 팬더 백 제작에 돌입한다. 잔느 투상 팬더 주얼리의 디테일과 아름다움을 담고자 까르띠에 아틀리에의 하이 주얼리 조각가와 협업했으며, 팬더 백의 보드를 완성하는 특별한 송아지가죽을 선별해 완성했다. 이로써

1 체리 레드 송아지가죽의 팬더 C 드 까르띠에 스몰 톱 핸들 백, 2 블랙 스몰 사이즈 톱 핸들 백, 3 디크 그린 컬러에 화이트 골드 및 블랙 에나멜 잠금장치를 매치한 미니 사이즈 핸들 백, 4 페일 핑크 컬러에 화이트 골드 잠금장치로 완성한 미니 톱 핸들 백.



사진 © Cartier

2025 S/S Trend Report

어지러운 국제 경제와 경제 상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이동까지, 그 어느 때보다 어지럽고 복잡했던 2025 S/S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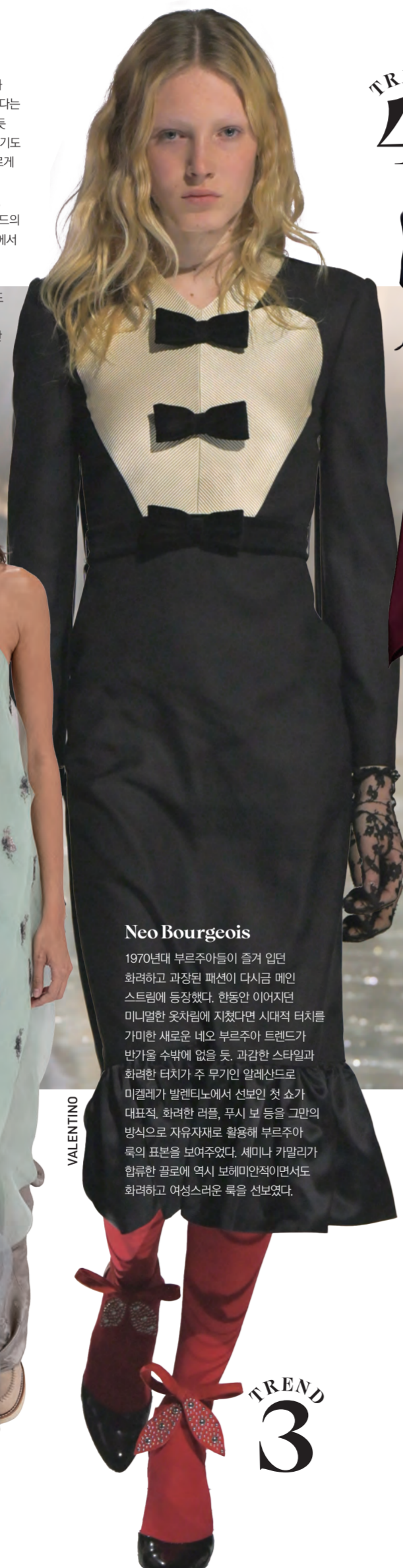


BURBERRY

TREND 1

Metallic Power

올 시즌 쇼는 유독 눈이 부셨다. 반짝이는 스팽글이나 시퀸 소재가 쇼 곳곳에서 등장했기 때문. 프리디는 아예 알루미늄이나 철을 사용한 듯 메탈릭한 느낌의 스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것은 시, 가상현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미래 지향적 패션 트렌드라 볼 수 있다. 어쩌면 럭셔리와 컨템퍼러리 브랜드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현 패션 신에서 오랜 노하우와 장인 정신으로만 탄생할 수 있는 오프 쿠티르적 의상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을 듯하다. 특히 버버리에서 화려한 스팽글 드레스에 스포티한 점퍼를 매치한 것도 흥미로웠다.



VALENTINO

Neo Bourgeois

1970년대 부르주아들이 즐겨 입던 화려하고 과장된 패션이 다시금 메인 스트림에 등장했다. 한동안 이어지던 미니멀한 옷차림에 지쳤다면 시대적 타치를 가미한 새로운 네오 부르주아 트렌드가 반가울 수밖에 없을 듯. 과감한 스타일과 화려한 터치가 주 무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발렌티노에서 선보인 첫 쇼가 대표적. 화려한 리본, 푸시 보 등을 그만의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활용해 부르주아 룩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세미나 카말리가 합류한 콜로에 역시 보헤미안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룩을 선보였다.

TREND 3

TREND 4



BOTTEGA VENETA

Transformed Suit

조용한 럭셔리 열풍을 잇는 룩은 다른 아닌 슈트 패션이다. 여성 슈트 자체를 하나의 콘셉트로 삼은 생 로랑부터 재킷 중간을 크롭한 과감한 디테일에 레이스를 덧대거나, 단추를 과감히 생략하고 랩 스타일로 완성하는 등 슈트의 다양한 배리어이션을 보여주며 재미를 더한 맥킨까지. 보테가 베네타에서는 긴 슈트 팬츠의 한쪽을 잘라 앞뒀 보면 스커트 같기도 한 색다른 슈트 핏을 선보였다. 지루한 일상 속 나만의 개성과 재미를 찾을 수 있는 빈가운 트렌드가 아닐 수 없다.

CHANEL

TREND 5

Romantic Feather

이번 시즌에 등장한 또 다른 소재는 깃털이다. 1960-70년대 귀족들의 헤어 장식에 쓰인 깃털이나 셸럼들의 레드 카펫 혹은 파티 룩에 간혹 등장하는 화려한 깃털이량은 조금 다르다. 로에베와 사넬에서는 아주 작은 깃털을 구조적으로 연결하거나 신체 일부에만 사용해 아주 여성적이고 우아하게 표현했다. 프라도도 오간자 소재에 깃털을 한 뼘 한 뼘 붙인 드레스를 깃털의 가벼움을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 깃털들은 이번 로맨틱시즘 트렌드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 매개체임에 틀림없다.



FENDI

TREND 2

Layered Elegance

재작년부터 Y2K 패션 트렌드가 도래하면서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것이 일상 속 자연스러운 패션이 되었다. 올해 역시 이러한 레이어드 패션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조금 소녀스러웠던 무드에서 엘리전트한 무드로 바뀌었다는 것이 특징. 펜디와 디올 등에서는 시스루 드레스에 하이웨이스트 팬츠를 매치해 우아한 실루엣으로 팬츠와 스커트를 레이어드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올해는 나이, 체형을 불문하고 꼭 한번 도전해볼 것.

for Women & Men

각자만의 방식으로 선보인 새로운 스타일과 여전히 유지되거나 재해석되는 여러 트렌드가 혼재한 이번 시즌은 지금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듯하다.



TREND 6

Trompe l'oeil

하이패션에서 주로 사용되던 트롬프뢰유 기법은 프랑스어로 '눈을 속이다'라는 뜻. 즉 착시 현상을 이용해 실제와 같은 생생한 효과를 내는 미술 기법이다. 이번 시즌엔 주로 보테가 베네타나 로에베에서 즐겨 사용하던 이 기법이 주를 이뤘다. 구겨진 셔츠처럼 모양이 잡힌 소재를 활용한 룩을 선보이기도 하고 로에베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재킷과 셔츠 같은 형태 그대로를 활용해 룩을 완성했다. 이외에도 프라도, 아크네 스튜디오 등에서 트롬프뢰유 기법을 적극 활용했다.



HERMÈS

No More Sleeve

기후온난화로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힘들어할 한국 남성들에게 빈가운 트렌드가 등장했다. 바로 소매 없는 상의가 2025 S/S 쇼에 다수 등장한 것. 일반 슬리브리스 티셔츠부터 니트 베스트, 슈트 베스트 등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변형된 것 역시 개성 있는 룩을 연출하고자 하는 남성들에게 희소식이다. 펜디는 앞단을 변형한 디자인의 셔츠를 제안했고, 루이 비통과 구찌는 튜 형태로 모던하게 선보인 것이 특징. 에르메스는 베스트 형태로 포멀하게 연출했다.

TREND 8

Polo Fever

작년 여성복에서 핫한 트렌드로 강조되었던 폴로 티셔츠가 2025년 남성복으로 옮겨 왔는데, 소재와 컬러가 더 다양해지면서 눈을 즐겁게 했다. 프라도와 로에베에서는 싱그러워 컬러로 몸매 슬림하게 보는 타이트한 폴로 티셔츠를 제안했다. 프라도는 실제 옷깃이 아닌 프린팅으로 연출해 재미를 주었고, 펜디는 사이드로 기울어진 디자인의 폴로 칼라 니트를 선보였다. 구찌는 메시 니트 소재의 폴로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비치 타일 소재 폴로 셔츠로 시원한 느낌을 더했다.

TREND 7

Block Core

남자를 지칭하는 속어인 '블록(block)'과 뽕뽕함을 뜻으로 승화된 패션 용어 '넌코어(Normcore)'를 합한 단어 '블록코어(Blockcore)' 트렌드는 최근 스모츠 브랜드와 하이패션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으로 급부상했다. 그 때문에 길거리에서는 축구 유니폼을 일상복처럼 입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다. 올해 역시 이 트렌드가 계속될 예정이다. 루이 비통에서 선보인 축구 선수 유니폼 같은 티셔츠와 미우미우에서 선보인 체대생 유니폼 스타일을 참고하자.

TREND 9

Pastel Mood

사람들은 늘 패션과 컬러로 불안한 국제 경제와 경제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녀왔다. 이번에도 역시 남성복에 침투한 로맨틱한 컬러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듯 남성복에 잘 사용하지 않던 파스텔컬러가 다수 눈에 띄었다. 피스타치오 그린이나 레몬 커드, 그레이시 핑크, 베이비 블루 등 농도와 채도에 따라 더 다양해진 파스텔컬러를 보는 재미가 있었다. 비비드한 컬러가 아닌 은은하게 다가오는 컬러들은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의 실루엣과도 이질감 없이 녹아드는 것이 특징이다. 에디터 성장민

TREND 10

LOUIS VUITTON

DIOR

LOEWE

H 아슬리케 자수 디테일을
가미한 둥근 세이프의 더스티
블루 호간 86er 남성 스니커즈
65만원, 데일리 웨어에 액센트를 주기
좋은 레드 스웨이드의 호간 86er
여성 스니커즈 65만원 모두 호간.

바다 표면에 반사되는 햇빛을 라인스톤
장식으로 표현한 호간 워셔드 데님 여성
재킷 77만원, 스퀘어 실루엣과 샌드 컬러
등 시즌리스 아이টে일로 충분한 나파
레더 소재의 호간 뱀 뱀 바올레토(Bam
Bam Bauletto) 백 1백만원 모두 호간.



The Spotlight

이탈리아 비치(beach) 파티에서 영감받았다. 나른한 듯 분방한, 쉬이 시선을 땔 수 없는 호간 2025 S/S 컬렉션의 유쾌한 리듬 속으로!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버킷 백과 슬더백, 크로스 백으로
연출 가능한 호간 호치 호보
(Hocket Hobo) 백 90만원,
보 장식이 귀여운 메탈릭 실버 컬러
호간 H-발레리나 플랫 슈즈
58만원 모두 호간.



블랙 H 로고와 볼드한 밑창, 명료한
디자인이 조화로운 호간 하이퍼라이트
(Hyperlight) 남성 스니커즈
75만원, 메탈릭 실버 버블 콕치하게
새긴 호간 하이파이(Hi-Fi) 여성
스니커즈 78만원 모두 호간.
에디터 김하얀



문의 02-540-0523



“
오메가의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은
아이코닉한 씨마스터
디자인의 클래식한 요소와
현대적인 장인 정신이 결합된
타임피스다.”

Time of Victory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타임키퍼 자리를 지켜온 오메가. 약 1년 후 밀라노 코르티나에서 열릴 2026 동계 올림픽에서도 함께할 예정이다. 오메가는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을 선보이며 또 한번 이 순간을 기념한다.

오메가는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공식 타임키퍼로 활동했다. 분 초 단위로 승리를 결정짓는 올림픽에서 타임키퍼 기술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타임키퍼를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왔다는 것은 워치메이킹 기술력에서 그 어떤 브랜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 약 1년 뒤에 열릴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 올림픽에서도 오메가는 공식 타임키퍼로 함께할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메가에서는 아이코닉 컬렉션인 '씨마스터 37mm'를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에디션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 1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는 씨마스터 37mm, 2 모던한 화이트 그라프 피 에나멜 다이얼에 조각된 18K 문사인™ 골드 아워 마커와 다이아몬드 폴라싱 및 패시 처리한 18K 골드 도핀 핸즈가 돋보인다. 3 폴라싱 처리한 케이스 백에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 로고와 올림픽 엠블럼을 새겨 스페셜 에디션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 4 오메가 로고로 완성한 폴라싱 처리한 18K 문사인™ 골드 버클. 5 육각 형태에 오메가 로고로 포인트를 부여한 무시버튼.

올을 자랑하며, 심플하고 모던한 다이얼과 12시 방향 오메가 로고 등 오리지널 씨마스터 올림픽 타임피스를 연상시키는 디테일한 디자인 요소가 돋보인다. 다이얼은 깔끔한 화이트 그라프 피 에나멜로 완성했고, 아워 마커는 조각된 18K 문사인™ 골드 로 선보인다. 이는 동계 올림픽의 꽃인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지는 깨끗하고 차가운 아이스링크를 연상시키는 듯도 하다. 다이아몬드 폴라싱 및 패시 처리한 18K 골드 도핀 핸즈는 시그니처 씨마스터 타이포그래피와 미닛 트랩을 포함한 그레이 프리 피 에나멜로 처리한 전사 마킹과 조화를 이룬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를 연상시키는 듯한 브라운 가죽 스트랩으로 완성했으며, 이와 어울리는 가죽 안감과 폴라싱 처리한 18K 문사인™ 골드 버클로 선보인다. 매우 차가운 느낌을 풍기는 데다 깔끔하고 모던한 이 위치는 밀라노의 대범하고 현대적인 감성과 어딘가 닮은 듯 보이기도 한다. 역시 폴라싱 처리한 케이스 백에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올림픽 로고와 올림픽 엠블럼을 새겨 스페셜 에디션만의 특별함을 더했다. 마치 금메달의 영광을 안은 듯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한다. 기술적으로도 뒤처지지 않는다. 내부에 탑재한 셀프 와인딩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807은 스위스 연방계측기관(METAS)의 인증을 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통해 오메가의 탁월한 정밀도와 성능, 자기 저항성을 입증한다. 오메가의 사장 겸 CEO 레이날드 애슬리만(Raynald Aeschlimann)은 "이 시계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오메가의 우수성을 상징하는 타임피스입니다"라며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씨마스터 37mm의 디자인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되었지만 오메가의 타임키퍼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이러한 일관성과 꾸준함 이면에 존재하는 지속적 혁신과 발전이 오메가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원동력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스페셜 에디션인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의 02-6905-3301 에디터 성정민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성을 담은 위치
오메가의 '씨마스터 37mm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은 아이코닉한 씨마스터 디자인의 클래식한 요소와 현대적인 장인 정신이 결합된 타임피스다. 18K 문사인™ 골드 소재의 대칭형 케이스에 독특한 육각형 크라운을 매치해 세련된 비



버진 울 체크 재킷 5백70만원,
실크 프린트 셔츠 가격 미정, 코튼
팬츠 2백10만원 모두 발렌티노.
카프 스킨 소재의 발레 뒤 루아 슈즈
1백39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oh!

M E N

스타일리시한 그 남자의 봄, 실루엣과 프린트에 주목할 것. PHOTOGRAPHED BY JUNG JIEUN

(왼쪽) 다울 앤 힐턴 널 화이트 코튼
블렌드 인타샤 스웨터 베스트
3백30만원, 브라운 스트라이프
울 랩 팬츠 3백80만원 모두 다울 맨.
(오른쪽) 베이지 버진 울 라넨 코트
7백20만원, 레지스트 프린트 라인
재킷 6백20만원, 베이지 톱 가격
미정, 베이지 버진 울 라넨 버뮤다
쇼츠 2백90만원 모두 다울 맨.



(왼쪽) 코도반 레더 재킷, 화이트 레더 zip업, 그레이 울 팬츠, 프린지 몽크 스트랩 레더 슈즈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오른쪽) 옐로 울 스웨터 가격 미정, 세브론 프린트 코튼 팬츠 가격 미정, 옐로 컬랩스 리나일론 및 스웨이드 엘라스틱 스니커즈 1백36만원 모두 프라다.



(왼쪽) 스트라이프 인터르시아 반소매 모크-터틀넥 코튼 스웨터 1백83만원, 라넨 패브릭 팬츠 1백66만원, 그린 컬러 슈즈 가격 미정 모두 돌체앤가바나. (오른쪽) 스트라이프 인터르시아 코튼 니트 폴로 셔츠 2백70만원, 라넨 패브릭 팬츠 1백66만원, 우븐 라피아 더비 슈즈 1백74만원 모두 돌체앤가바나.

구찌 엠보스 및 라이트 블루 칼라
디테일의 브라운 레더 재킷, 프린트
디테일의 코튼 셔츠, 라이트 다크
그레이 울 트윙 쇼트 팬츠, 실버 홀스빗
마감 디테일의 블랙 레더 부츠, 라이트
브라운 코튼 삭스 모두 가격 미정 구찌.



올 레인 시스템 재킷, 캐시미어
온리 더블 셔츠, 울 & 리넨과
실크 소재 폴로 스웨터,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왼쪽) 오버사이즈 핏 레더 블레이저
 가격 미정, 브라운 코튼 셔츠
 가격 미정, 컴포트 핏 데님 진 95
 만원 모두 토즈 (오른쪽) 쇼트
 트랜치코트 8백60만원, 브라운 하프
 집업 니트 가격 미정, 스트레이트
 핏 팬츠 1백1만원 모두 토즈.



샌드 싱글브레스트 레인코트, 블랙 울
 개버딘 소재의 새틴 사이드 스트라이프
 디테일의 테일러드 칼백 턱시도 팬츠,
 맥퀸 T-바 로퍼 모두 가격 미정 맥퀸.

헤어 Ryunoshin Tomoyose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이강민(Jennifer Model),
 Plan(Exclusive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프라다 02-3442-1830
 토즈 02-3438-6008
 발렌티노, 발렌티노 가라바니 02-2015-4655
 구찌 02-3452-1921
 맥퀸 02-6105-2226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로로피아나 02-6200-7799
 디올 맨 02-3280-0104



Scents of Spring

매서운바람 뒤에 한층 더 극적이고 포근하게 다가오는 봄의 향수. PHOTOGRAPHED BY PARKJAEYONG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결랑 라 뽀띠 로브 노와르 오 드 투왈렛
 상큼한 플로럴 향의 정석. 레몬과 베르가모트 향이 그리스산 정미와 블랙커런트를 거쳐 화이트 앰버와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50ml 16만1천원. 문의 080-343-9500
버버리 뷰티 가디스 EDP 세트 브랜드
 시그니처 아이템인 모아 만드 세트 중 하나. 향수, 보디로션(75ml)과 펜 스프레이(10ml)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드러운 바닐라와 향긋한 라벤더 향이 만나 봄 특유의 산뜻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100ml 27만5천원(세트). 문의 080-850-0708
자방시 뷰티 드 지방시 데조베이션 소나무
 향을 더한 카다멈과 이탈리아 레몬으로 완성한 싱그러움 시트러스 향이다. 같은 컬렉션 중 하나인 아코트 파타클리에의 우디 머스크 향과 레이어링하면 색다른 시트러스 향을 즐길 수 있다. 100ml 42만원. 문의 080-801-9500
디올 뷰티 라 콜렉시옹 프리베 브리
탈리스망 오 드 파퓌 강렬한 시더우드와 코끝을 스치자마자 풍부한 향의 바닐라가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난 듯 기분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00ml 45만원. 문의 080-342-9500
조 말론 런던 타이프 로즈 코롱 인텐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담은 듯 달콤한 타이프산 장미 향이 은은하게 번지면서 씩씩한 커피와 따뜻한 앰버 향이 두드러진다. 50ml 21만8천원. 문의 02-6971-3228
딤펬크 리미티드 오르페옹 오 드 파퓌
 브랜드 창립자 3명이 모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영감을 나누던 1960년대 재즈 클럽 오르페옹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각태일을 즐기는 사람, 테이블의 나무 냄새를 톡카 빈과 시더우드, 주니퍼 베리 노트로 표현했다. 30ml 16만5천원. 문의 02-3479-6049
구찌 뷰티 피오리 디 네롤리 오 드 파퓌
 네롤리 잎과 꽃 향에서 시작해 은은하고 따뜻한 시더우드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오렌지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낭만적인 보틀도 인상적. 100ml 51만2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김하얀

Lux for Skin

탁월한 효과는 물론 향, 텍스처 등 모든 면에서 궁극의 스킨케어 리추얼을 선사하는 샤넬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수블리마지 라인에서 신제품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와 르 세럼을 출시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전례 없는 생각에서 비롯된 제품답게 피부 자체에 활력을 부여할 뿐 아니라 본연의 힘을 되찾아주는 데 집중한다.

최상의 포몰리가 이끌어내는 피부 활력

샤넬 연구소는 피부 강화에 놀라운 효과를 전하는 강력한 성분을 농축한 고유의 포몰리를 개발해냈다. 샤넬의 혁신적인 활성 성분인 폴리프렉셔널 과정을 거친 바닐라 플레니폴리아는 오랜 시간 정교하게 진행되는 모든 공정을 통해 최초 원료보다 40배 더 농축된 활성 분자를 만들어낸다. 덕분에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풍부한 활력을 충전하고 피부의 근본적 힘을 강화한다.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 수블리마지에는 이 핵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특히 샤넬의 베스트 셀러이자 수블리마지 라인의 입문 아이템으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성분으로 출시되었다. 새롭게 선보이는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피부 구조와 유사한 바이오미메틱 지질 성분을 포함해 빠르게 스며들며 피부 보호 및 강화에 도움을 준다. 수블리마지 르 세럼에는 특별 활성 성분인 솔리다코 추출물과 리포펩타이드를 추가했다. 이 두 제품은 모두 샤넬 연구소에서 정의한 건강하고 어려 보이는 피부에 대한 지표인 수분감, 편안함, 주름, 탄탄함, 균일함, 피부 강화와 광채에 집중 작용한다. 또 사용 직후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사용할수록 피부 톤과 결이 균일해진다.

강력한 스킨케어 효과의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리추얼

고귀한 아름다움을 되찾는 과정은 단연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라인인 샤넬의 수블리마지로 귀결된다. 더 강력해진 수블리마지 르 세럼과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모든 여성이 원하는 활력 넘치고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이다.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어 벨벳처럼 매끈하고 산뜻하게 발려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하는 수블리마지 르 세럼은 수블리마지 스킨케어 리추얼의 다른 제품을 바르기 좋은 상태로 피부를 정돈해주며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는 풍성하고 부드럽게 스며들며 다양한 감각을 만족시킨다. 두 제품 모두 특별하게 디자인된 보틀로 깔끔한 라인이 특징이며 진귀한 클래식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화장대에 두고 보는 것만으로 만족감을 선사한다. 수블리마지 르 세럼과 르 마스크는 환절기와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으로 피부 컨디션이 떨어지기 쉬운 때, 피부 본연의 활력과 힘을 되찾아 아름답게 빛나는 피부로 가꿔 마지 스킨케어 와 있는 것같이 고급스러운 케어를 완성해 줄 것이다. 문의 080-805-9638 에디터 정영민

샤넬 수블리마지 르 세럼 30ml
74만4천원, 리필 66만2천원

샤넬 수블리마지 르 마스크 50g
36만5천원, 리필 31만원



NEW LIPSTICK

맥 맥시멀 매트 립스틱 #627 쿨 테디 모든 피부 톤에 어울리도록 디자인된 '맥 누드 컬렉션'의 립스틱. 매트 피니시로 컬러가 선명하게 유지되는 것은 물론 핑크 로즈 컬러가 MLBB 립으로 제격이다. 3.5g 3만9천원대. 문의 1644-3748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Editor's Pick

출시되자마자 위시 리스트 0순위를 차지하는 이달의 뷰티 아이템 10.

PHOTOGRAPHED BY YOON JI YOUNG

NEW PERFUME

샤넬 코코 마드모아젤 오드 빠르랭 앵팡스 펠스 스프레이 샤넬만의 아이코닉한 향기에 골드와 펠로 이뤄진 더블 체인 스트랩은 덤. 향수를 샀을 뿐인데 액세서리까지 얻은 듯. 7ml×3 30만9천원. 문의 080-805-9638 .by 에디터 성정민

르 라보 유칼립투스 20 유니크한 나만의 향기를 갖고 싶거나 짙은 레드 향 마니아라면 완전히 만족할 것. 많은 이들에게 문의받은 제품이기도 하다. 100ml 44만6천원. 문의 02-6971-3204 .by 에디터 성정민

버버리 뷰티 02 더스터 카러멜 골드, 베이지, 초콜릿과 브라운 등 네 가지 컬러로 구성해 그윽한 눈매를 완성할 수 있으며, 실키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로 뭉침 없이 레이어링하기 좋다. 4.7g 8만3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신정임

디올 뷰티 디올 스노우 에센스 오브 라이트 크림 에델바이스 추출물이 들어 있어 칙칙한 피부 톤을 화사하게 연출해주고 수분감이 있는 크림 제형으로 흡수력이 뛰어나며 부드럽게 발린다. 50ml 17만7천원대.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신정임

달바 클린 티트리 리포좀 톤업 선크림 SPF 50+ PA++++ 티트리 잎수 성분에 리포좀 기술을 더해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고 순하게 진정시켜 만족스러웠다. 50ml 3만4천원. 문의 02-332-7727 .by 에디터 신정임

시세이도 얼티문 파워 인퓨징 세럼 발효 카멜리아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해 탄력과 결을 개선하며, 환절기 거칠어진 피부에 화상의 컨디션을 선사한다. 50ml 18만원대. 문의 080-564-7700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발몽 바이탈 B 세럼 발몽은 안티에이징에 자신인 것 같다. 리포솜 RNA, 사과 출기세포 등 피부 활력과 탄력 개선에 좋다는 성분을 아낌없이 넣었으니. 실제로 며칠 안 돼 피부가 매끈해졌다. 30ml 36만원. 문의 070-4352-5203 .by 에디터 김하얀

겔랑 아베이 로얄 유스 워터리 오일 세럼 오일 특유의 끈적임 ZERO! 롤링 시 만져지는 독특한 마이크로 비즈가 바르는 재미를 더해 스킨케어 시간이 기다려진다. 50ml 22만원. 문의 080-343-9500 .by 에디터 김하얀

NEW CUSHION

에스티 로더 에스티 로더 X 매종 라뒤레 세컨 스킨 블러 쿠션 파티스리 브랜드 라뒤레의 마카롱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리미티드 컬렉션 쿠션. 매끈하고 보송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케이스+리필 2개 세트, 12g+12g 10만3천원대. 문의 02-6971-3212 .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 상영관(30대 미인전), 김해인(30대 귀환), 신정임(20대 복합성), 김보민(20대 지·복합성)



1 **로로피아나** 2025 S/S 광고 캠페인 이탈리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2025 S/S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햇빛과 푸른 초목으로 가득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배경으로 한다. 로로피아나의 1백 년 역사와 유산을 기리는 2025 S/S 컬렉션 중심 소재인 리넨과 자연의 색으로 이루어진 컬러웨이를 적용해 편안하고 느긋한 무드를 담았다. 문의 02-6200-7799

2 **샤넬 뷰티 에끌라 프리미에 라 바즈 메이크업 베이스** 샤넬 뷰티에서 에끌라 프리미에 라 바즈 메이크업 베이스를 제안한다. 프리미에 플라워 추출물과 나이아신아미드를 함유해 피부 본연의 광채를 되살려주며,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더해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줘 맑고 투명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문의 080-805-9638

3 **스와로브스키 아리아나 그란데 X 스와로브스키 캡슐 컬렉션** 스와로브스키가 글로벌 브랜드 엠베서더 아리아나 그란데와의 첫 컬래보레이션 컬렉션인 '아리아나 그란데 X 스와로브스키 캡슐 컬렉션'을 공개했다. 음악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 하트와 음표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크리스탈 펄을 중심으로 한 음표와 하트 실버 디자인이 특징이다. 팔찌, 귀고리, 펜던트, 티아라 등 다양한 주얼리로 선보인다. 문의 02-1522-9065

4 **리모와 '리모와 X 리 오웬스 오리저널 캐빈 브론즈'** 리모와에서 리모와의 알루미늄 장인 정신과 리 오웬스의 거칠고 어두운 미학을 결합한 '리모와 X 리 오웬스 오리저널 캐빈 브론즈'를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아이코닉한 알루미늄 소재에 빈티지 효과를 준 디자인과 리모와 최초의 전체 가죽 내부가 특징이며, 리모와의 평생 보증을 제공한다. 리모와 및 리 오웬스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 RIMOWA.com, RickOwens.eu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3920

5 **쇼파드 해피 하트 컬렉션** 쇼파드에서 사랑의 기쁨을 모티브로 제작한 해피 하트 컬렉션을 제안한다. 하트 펜던트가 특징이며 작은 하트에 무빙 다이아몬드를 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윤리적 골드로 제작한 자개, 블랙 옆니스,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또는 로즈 골드 옵션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6905-3390

6 **샤넬 25 핸드백 캠페인** 샤넬에서 싱어송라이터 두아 리파와 함께한 샤넬 25 핸드백 캠페인을 공개했다. 샤넬 25 백은 기존의 쉘링, 가죽을 엮은 체인, 멀티 포켓 등의 디테일을 기능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3가지 사이즈로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Showroom

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

7 **시세이도 '얼티문 저속 노화 라운지' 팝업** 글로벌 프레스티지 코스메틱 브랜드 시세이도에서 NEW 얼티문 세럼을 출시해 지난 3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동안 '얼티문 저속 노화 라운지' 팝업을 진행했다. NEW 얼티문 세럼의 저속 노화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에어볼 게임, 피부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는 스킨 비주얼라이저 컨설팅 서비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경험해볼 수 있었다. 문의 080-564-7700

8 **발몽 바이탈리티 리추얼 출시** 스위스 코스메틱 브랜드 발몽에서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지향하는 글라스 스킨을 모티브로 유니섹스 스킨케어 컬렉션 바이탈리티 리추얼을 출시했다. 독점 개발한 실라놀 DNA 성분을 포함한 핵심 성분의 4가지 바이탈리티 카테요를 피부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며 세럼, 아이 크림, 모이스처라이저 등 3종으로 구성해 선보였다. 문의 070-4352-5203

9 **위블로 빅뱅 메카-10 42mm 출시** 위블로에서 2016년 최초 공개한 메카-10을 개선된 칼리버를 장착한 메카-10 42mm 케이스로 출시했다. 킹 골드, 티타늄, 프로스티드 카본 등 3가지로 선보였으며, 케이스에 원 클릭 시스템을 적용해 스트랩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10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540-1356

10 **그라프 브라이덜 캠페인** 그라프가 낭만적인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사랑 고백부터 그라프 파리 샵 롱 근처에서의 행복한 순간까지 러브 스토리를 6가지 장면으로 표현한 브라이덜 캠페인을 공개했다. 해당 캠페인에서 다이아몬드 인게이지먼트 링, 브라이덜 주얼리,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등 다채로운 그라프 컬렉션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320

11 **까르띠에 팬더 드 까르띠에 백** 까르띠에 주얼리의 상징인 팬터를 모티브로 한 팬더 드 까르띠에 백을 제안한다. 이 백은 팬더 머리를 갖춘 뱅글 형태의 잠금장치 디자인이 돋보이며 스몰, 미니 총 2가지 사이즈와 블랙, 체리 레드 등 4가지 컬러로 구성했다. 탈착 가능한 끈으로 가볍게 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걸칠 수 있게 제작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1877-4326





CHANEL